

[사회]

불법구조변경 차량 돈받고 정기검사 통과 교통공단 직원 등 무더기 적발

전남경찰청, 공업사업주 등 126명 조사

웃돈을 받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교통안전관리공단 직원과 자동차 공업사업주 및 검사원, 이를 의뢰한 차량 소유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청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금품을 받고 허위로 정기검사를 해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김모(53)씨 등 K자동차 공업사 업무 18명과 이모(53)씨 등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 검사원 2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상적인 차량 검사비 2만5천원 보다 많은 건당 6만~3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 직원들도 2~3차례에 걸쳐 건당 5만~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들의 개입 정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건설교통부의 지정을 받은 광주 67개 공업사 가운데 18개 업체가 적발된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또 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적합 판정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안전사고 급증

작년 1,924건 ... 휴식·체육시간 많이 발생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25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3년 680건, 2004년 970건, 2005년 1천139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전남도 지난 2003년 587건, 2004년 697건, 2005년 785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은 2005년을 기준으로 광주는 휴식시간(468건), 체육시간(349건), 교외활동(188건) 등이었다. 전남은 휴식

시간(339건), 체육시간(245건) 등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1천 139건에 4억2천200여만원이, 전남은 331건에 2천500여만원이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금 한도액은 서울·부산·울산·경기 등 4개 지역은 '무한'인데 반해 충북 1억7천만원, 경남·경북·충남 1억5천만원, 대구·대전·인천 1억2천만원, 광주·강원·전북·제주 1억원, 전남 7천만원 등으로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금 한도액이 낮았다.

/원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추계 석전대제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공자를 모신 사당에 지내는 제사)가 25일 오전 광주 향교에서 지역 유림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의식에 따라 거행됐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찰 '증거분리제출' 전국 확대

"기소때 공소장만 내고 일체 수사기록 미제출"

대검찰청은 25일 현재 18개 지검에서 실시되고 있는 증거서류 분리제출은 55개 지검·지청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4개 지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관여 방식을 18개 지검 단위에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분리제출'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고 검사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이는 앞에서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로, '공판 중심주의' 재판부가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으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판 시작 때 공소내용을 요약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외에 범행동기·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물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길게 답변하고 검찰도 구형 이유가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의 사전 제출을 철저히 거부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이 제약받고 재판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진술을 생생하게 들으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 방식이다.

/연남뉴스

복잡한 검사체계 '비리사슬' 불렀다

불법 구조변경 왜 가능했나

웃돈을 주고 차량 정기검사를 피해 온 차들은 대부분 활어 운송 화물차나 유압차였다.

◇불법개조 왜=활어 운반차(2.5t 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3.7t이 정상 적재용량인데도 불구하고, 6~8t까지 불법 적재함을 실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압차들은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 바퀴에 크레인을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개조가 관을 치는

이유가 ▲자동차 공업사와 특장회사 등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데다 ▲허술한 정기검사를 통해 웃돈을 주고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능하면 한번에 많은 양의 활어를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활어 운반차들이 불법으로 적재함을 개조해 다닌다"며 "그러나 화물 차량이 적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초과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비리 사슬은 왜? = 교통안전공단·공업사·공무원이 연

계된 불법구조 변경 비리는 복잡한 정기검사 절차와 연관이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소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 5년까지는 연 1회,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항목은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 승차 장치의 불법 구조변경 ▲앞바퀴 정렬 ▲제동력 ▲속도계 지시 오차 ▲전조등 ▲배출가스 등이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공업사에서 이뤄지게 된다. 검사물은 차량이 적재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초과할 경우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비리 사슬은 왜? = 교통안전공단·공업사·공무원이 연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10억 당첨복권 '인쇄실수' 수령 불가

발행 오류로 검증번호 불일치

즉석복권 1등에 당첨되기도 복권 인쇄과정의 실수로 인해 당첨금 10억원을 타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2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드-2000' 추첨결과 1등인 10억원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은행으로 달려간 A씨는 "지급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복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복권 뒷면에 새겨진 검증번호가 은행 측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스피드-2000'의 경우 복권 인쇄소·인쇄복권사업단·당첨금 지급 금융기관 등 3자간 검증번호가 맞아떨어져야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복권위 조사결과 문제의 복권과

같은 1회차로 발행된 복권 2천만매 중 7천 매가 발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 인쇄업체가 복권생성 전산 프로그램을 인쇄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복권위의 설명. 복권위는 25일 오전 9시를 기해 '스피드-2000'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해당 복권 전량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복권위는 오류가 발생한 7천매 중 1등 당첨복권이 10매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천원짜리인 '스피드-2000' 복권은 회당 1등 당첨매수는 4매다.

/연남뉴스

일교차 커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9월 26일
(음 8월 5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맑음	15~25℃
대전	구름맑음	16~25℃
대구	구름맑음	18~24℃
부산	구름맑음	14~26℃
서울	구름맑음	14~26℃
인천	구름맑음	12~26℃
경기	구름맑음	12~25℃
충청	구름맑음	13~26℃
전북	구름맑음	13~26℃
전남	구름맑음	13~26℃
제주	구름맑음	14~27℃
울릉도	구름맑음	11~26℃
독도	구름맑음	13~2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3:54 썰물 < 09:08
16:30 썰물 < 21:35
여수 밀물 < 10:54 썰물 < 04:20
22:53 썰물 < 16:52

▲해돋이 06:23 ▲해질 18:24 ▲달출 09:41 ▲달몰 20:01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수)	28(목)	29(금)	30(토)	10/1(일)	2(월)
날씨						
최저/최고	14/25	15/26	14/26	14/26	14/25	14/25

초속 75m 바람도 만든다
기상청, 風洞장비 들여와

기상청은 초속 75m(시속 270km)의 바람을 만들 수 있는 새 풍동(風洞) 장비(사진)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풍동장비는 인공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 일명 '바람굴' (wind tunnel)이라고 불리며, 풍향·풍속계의 검정과 항공기·자동차·철도 등을 설계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사용된다.

7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풍동장비는 국내 3번째 규모.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 초속 120m의 풍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방연구소가 초속 110m의 풍동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35년 전 도입한 초속 50m(시속 180km)의 풍동장비를 사용해 초속 50m를 넘는 바람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12일 태풍 '매미'가 지나갈 때는 제주지방에서 초속 60m의 바람이 관측됐고 2000년 8월31일 태풍 '프라톤' 때는 흑산도에 초속 58.7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송전탑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승배기자 lsb54@

무안~영광~인천 등 2곳
30일부터 고속버스 운행

금요고속(대표이사 김성산)은 추석 앞둔 오는 30일부터 무안~영광~인천 노선과 진도~영광~동서울 노선을 신규 개통한다.

무안에서 출발해 영광을 거쳐 인천에 도착하는 노선은 1일 2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무안발 1만9천900원, 영광발 1만6천900원이며 소요시간은 각각 4시간 20분, 3시간 30분이다. 운행시각은 무안발 오전 9시와 11시이며, 인천발 오후 2시30분, 4시30분이다.

진도에서 출발해 영광을 거쳐 동서울에 도착하는 노선 또한 1일 2회 왕복 운행한다. 요금은 진도발 2만6천원, 영광발 1만9천원이며 소요시간은 각각 5시간 40분, 3시간 50분이다. 운행시각은 진도발 오전 9시10분, 9시20분이며 영광발은 9시10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SONY

DSLR 카메라를 선택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
이것이 바로 SONY의 DNA입니다.

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
이것이 바로 SONY의 DNA입니다.

α

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
이것이 바로 SONY의 DNA입니다.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몰입한방으로

www.hanboGAGU.com

한보가구 (02)325-0100

사무용의지 전문기업
토치 광주총판

TOUCH

사무용 의지 전문기업
TOUCH

사무용 의지 전문기업
TOUCH